

[경제]

한국 창업하기 힘들네

법인설립 구비서류

한국 48개

일본 17개

미국 5개

우리나라 창업 편리성이 세계은행 평가 대상 175개국 중 116위로 나타나는 등 창업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은 법인설립시 미국의 9.6배에 이르는 48개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설립비용 또한 미국·캐나다 등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반려 및 지연 등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지자체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창업 용이성 175개국 중 116위 = 연구원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로요인으로 우선 창업 자체의 어려움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의 특정한 등기제도를 채택, 법인설립 절차가 영미법계 국가에 비해 복잡하다. 법인설립 구비서류수는 48개로 미국의 9.6배, 일본의 2.2배 수준이고 법

인설립 비용도 미국·캐나다보다 1.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대규모 주식회사와 동일한 절차를 요구,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의 창업 용이성을 전세계 175개 국가 중 116위로 평가하고 있다. 까다로운 입지 규제도 공장 입지

우선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가계대출에 주력하면서 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고 특히 벤처캐피탈과 같은 모험자본까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함에 따라 창업 초기자금 확보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난 1997년 70.8%에 일렸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비 중 기업투자비는 75%로 미국 63%, 독일 66%, 프랑스 52% 등 선진국보다 높아 R&D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기업 발목 잡기 =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전국 16개 광역시도 320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자체의 발목잡기 실태가 드러났다. 구체적인 애로유형으로는 '인·허가 반려 및 지연(51.1%)'이 가장 많았고 가장 큰 애로분야는 '환경' 53.1%, '토지·공장임지' 15.5%, '소방·안전' 14.1% 등이었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기업인들은 지자체와의 업무협의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공무원의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을 꼽았다"면서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지방정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도 불만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비용美·加的 1.8배...창업 편리성 세계 116위 중앙정부보다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애로

선정 및 설립을 위한 평균 인·허가 소요기간은 137일, 관련비용은 6천500만원에 이르러 2002년 이후 증가하던 공장설립 승인건수가 지난해 감소로 돌아섰다. ◇자금·R&D 지원도 미흡 = 창업이나 법인설립의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은 다시 자금과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금융기관의 산업대출 비중은 지난해 50.2%로 떨어졌고 벤처캐피탈의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도 2002년 63.4%에서 지난해 26.5%로 내려갔다.

금융기관의 기술평가·지적재산권 담보대출이 여전히 미진한 상태에서 부동산담보 위주 대출만 실시되다보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확보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여자의 적은 바로 여자” 직장인 여성 86% 공감

취업포털 커리어가 다음취업센터 등과 공동으로 여성 직장인 1천4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5%가 '직장 내에서 여자의 적은 여자란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다른 여성 동료가 자리에 대해 험담할 때(37.3%), '동료를 밟고 비빌음'을 말했는데 소문이 날 때(22.5%) 등을 들었으며 여성 직장인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동지적인 관계(59.4%)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1달러 = 952.20원

두달만에 최저...원·엔환율 810원 붕괴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하며 두 달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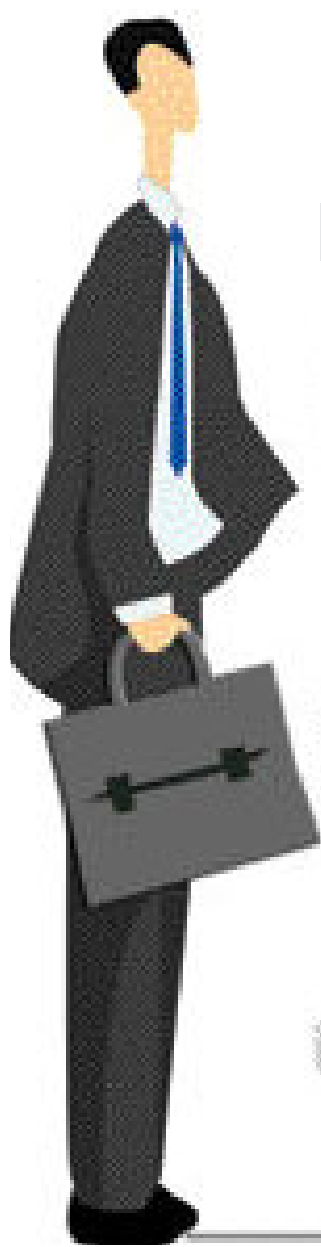
원·엔 환율은 다섯 달 만에 100엔당 810원 아래로 내려갔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4.30원 떨어진 952.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월25일 952.10원 이후 근 두 달 만에 최저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0.50원 하락한 956.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수출기업들이 매출을 내놓자 954원선으로 밀렸다.

이후 955원 부근에서 등락하던 환율은 매물 부담으로 차츰 저점을 낮췄고 장 막판 은행권 손절매대로 952.00원까지 떨어졌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환율이 기업 매출 부담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수출업체들은 원·달러 환율이 118엔대 안착에 실패하자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섰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810원선 아래로 떨어지자 손절설 매도가 급증하며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원·엔 환율은 100엔당 807.10원으로 마감하며 4월 21일 806.60원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800원대로 떨어졌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GDP대비 외국인 투자 비중

홍콩 240% vs 한국 9%

금융·인프라·노동시장 등 부문별 경쟁력 낮아 기피

한국의 금융, 인프라, 노동시장 등 주요 부분의 경쟁력 수준이 경쟁국가에 비해 낮아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해외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한 '주요 부문별 경쟁력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대비 외국인투자 비중이 한국은 9.0%로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160.2%)의 약 18분의1, 홍콩(239.2%)의 약 27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가 금융, 인프라, 노동시장 등 주요 부분의 국내 경쟁력 경쟁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데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IMD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부분의 한국 순위는 조사대상 61개 국가중 37위로 싱가포르 19위, 홍콩 2위, 대만 16위 등

경쟁국에 비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항목 중에서 신용(49위), 은행 및 금융 서비스(52위), 은행규제(54위), 주주권리(53위) 부문은 후진국 수준인 50위 내외를 기록하고 있었다.

인프라의 경우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세계 23위로 싱가포르의 2위, 홍콩의 8위, 말레이시아 14위, 대만 20위에 비해 뒤졌다.

IMD자료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경우 한국의 순위는 43위로 아시아 주요경쟁국(싱가포르 3위, 홍콩 2위, 대만 16위)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인 BRICs(브라질 35위, 러시아 42위, 인도 1위, 중국 5위)에 비해서도 낮았다.

임금의 경우 한국의 제조업임금지수는 153.5로 미국 115.7, 영국 120.1, 일본 103.8, 대만 106.8에 비해서 높았으며 추세적으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의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금융 부문 경쟁력 강화, 인프라 확충, 노동시장 안정 등 3가지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합뉴스



“우리콩 고소한 맛 두부” 드세요 19일 농협 하나로클럽 서대문판매장에서 도우미들이 농협의 대표 브랜드인 ‘이름찬’의 ‘우리 콩 고소한 맛 두부’를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철강 축적량 얼마나 될까?

소형승용차 5억800만대 제조 분량

국내에서 현재 자동차나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만들어져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쇠의 분량은 과연 얼마나 될까.

19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가 쇳물을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 생산된 철강재에서 수출과 재활용된 고철(철스크랩)의 분량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산한 국내 철강축적량 누계는 작년말 현재 4억2천411만7천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강협회와 철강계의 장·단기 수요예측 등을 위해 철강계 총생산량에서 자·간접 수출과 자·간접 수입량, 재활용된 고철량, 수입·수출된 고철량 등을 감안해 계산한 것이다.

작년말 현재 4억2천만톤

4억2천411만7천톤은 대략 30만대 리유조선을 9천45척 건조할 수 있고 자동차(소형 승용차)는 5억800만대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철강축적량 누계치는 1990년 1억2천193만4천톤에 불과했던 것이 1995년 2억1천531만6천톤, 2000년 3억1천138만9천톤 등으로 늘었고 2003년 3억8천41만8천톤에서 2004년 4억259만6천톤으로 4억톤을 넘어섰다.

이처럼 축적량 누계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를 비롯해 철강을 사용하는 수요산업의 제품 수

출이 늘어나면서 철강재의 간접수출량이 증가, 매년 새로 축적되는 분량은 2003년 2천424만톤에서 2004년에는 2천218만, 작년 2천152만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조강(쇠물) 생산량이 7억8천921만t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략 이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분량이 국내에 축적돼 있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철강재 수출이 1천699만9천t, 수입이 873만3천t이어서 직접 수출분은 826만6천t이었으며, 선박이나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제품수출분인 간접 수출은 1천195만5천t인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美체류 이견희 회장 새 화두

“창조적 경영으로 글로벌 공략”

미국에 체류중인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창조적 경영’이라는 새 화두를 던졌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말로 요약되는 ‘신경영’ 이후 삼성이 세계 톱 클래스의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이 회장이 더 이상 모범으로 삼을 ‘벤치마크’가 없고 뒤따르는 추격자들만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온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이라고 삼성은 설명했다.

이 회장은 세계 최첨단 정보기술(IT)의 경연장이라고 할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워너센터에서 19일 (이하 한국시간) 가진 전자사업장 회의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독자기술 와이브로와 최근 한국에서 발표된 CFT(Charge Trap Flash) 반도체 기술, 디자인과 기술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보르도 LCD TV 등을 ‘창조적 경영’의 산물로 거론했다.

이 회장은 이어 “창조적 경영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인력 채용과 육성, 과학적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회장은 5개월간의 체류 끝에 지난 2월 귀국한 이후 전자, 금융, 독립계약사 등 직군별 사장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과거에 해온대로 하거나 남의 것만 카피해서는 절대 독자성이 안 생겨나므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보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창조적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경영진에 주문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와 같은 ‘창조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시스템과 경영인력이 창조적이 되어야 한다. “고 지식이고 특히 ‘창조적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기에 정보통신, 황창규 반도체, 최신 디지털미디어 사업 등 삼성전자 CEO들은 이미 염두에 두고 있던 세계 톱 클래스 기술인재들을 이번 미국 체류 기간에 집중 영입할 방침이다. “이제는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신성하이텍	신성하이텍 생산관리대리&품질관리과장	초대졸/경력2년	1800~2000	09/20	062-952-1441
삼진MPS	GS칼텍스 여수공장 사무보조 비서직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9/20	02-558-3385
씨비소프트	주요소프웨어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9/20	02-2025-0440
선광엔지니어링	계측관리 및 보고서작성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9/21	062-232-5857
대창 E&T	유류 취급관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2	062-383-6831
에스팩	소프트웨어교육 및 점검업무	고졸/경력2년	1400~1600	09/22	02-6251-1001
지비씨 유통	사무관리 여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9/23	062-350-8170
전광계기산업	기계설비 및 조립	고졸/경력2년	1400~1600	09/23	062-521-7100
경진산업개발	자동차부품 생산직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3	062-523-2072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2006년 분야별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5	010-6654-3480
한국노버티스	광주 영업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5	02-768-9124
라이프리서치	월간지사총합지 뉴스라이프 취재부 기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9/27	062-263-1114
현대코리아	인조대리점 상인 제조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27	062-956-6852
기키키스튜디오	시뮬레이션 및 사진편집	고졸/경력2년	1200~1400	09/27	062-382-0203

(광주지역에 512-6210 제공)

LG전자 ‘책 읽어주는 휴대전화’ 출시

LG전자(대표 김경수, www.lge.com)가 시각장애인 전용폰인 ‘책 읽어주는 휴대전화’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휴대전화는 LG선남도서관이 운영중인 ‘책 읽어주는 도서관’에 접속해 도서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기능을 갖췄다.

이 제품은 휴대전화의 모든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해 줄 뿐 아니라, 음성인식기능, 문자메시지 음성변환기능 등을 내장해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16mm대의 슬림 슬라이드 디자인에 블루투스 헤드셋, 블루투스 단말기 간 데이터 송수신, 모바일 프린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끼리 최대 100m 내에서 위키토키 기능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외장메모리(MicroSD)를 지원해 MP3 등 사용자 지정음악 확장이 용이하고, 강력한 멀티태스킹, TV리모컨 등 인기 있는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췄다. /연합뉴스